

대행 스님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것이 바로이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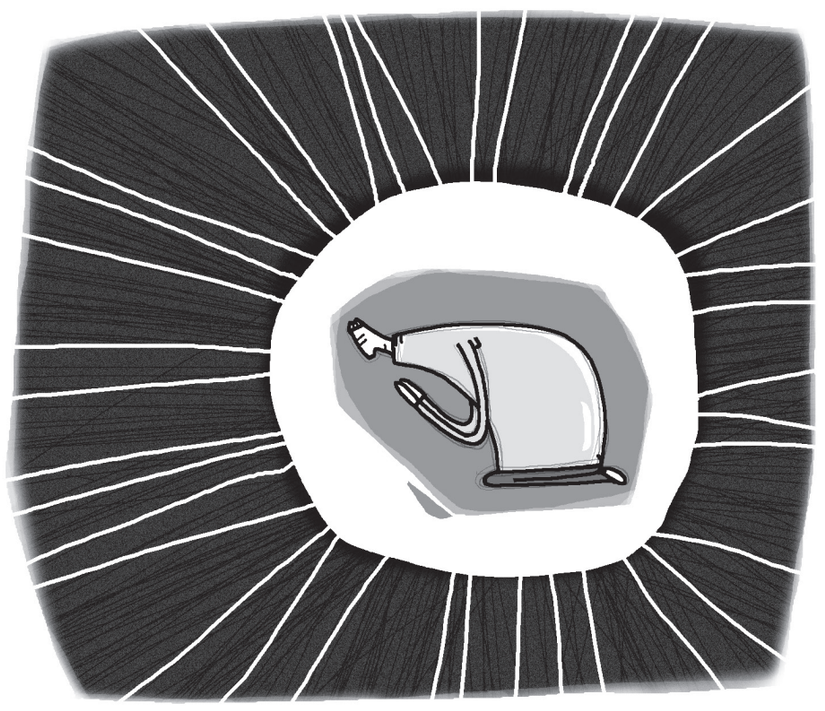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있는 그 업식이 현실에서 여러분이 사는 고통과 애고와 병고를 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커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됩니다. 첫째는 공부 길이 아주 정법으로, 정의로 들어가니까 옳고, 무슨 이 다리를 거치고 저 다리를 거치고 이거를 넘고 이런 게 아니라 직통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애고를, 전체 애고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불바퀴에 넣으면 불에 타 버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냥 모두가 녹아 버리듯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빚도 줄 수 있고 또 부부도 편안하게, 가정을 다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부처님 법이란, 우리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부처님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부처님도 알았고 상대성의 원리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체 내에서 모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있고 업보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인과성도 있고, 이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이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듣고 헛넘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를 탐지하고 실험하느라고 십여 년이 걸렸습니다. 책이나 읽고, 즉 조사들의 뒷발자취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 생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생이란 한 철 나고 누구나가 다 갈 것인데 이 한 철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아픔과 딴 사람 아픔과 모든 사생의 아픔이 다 같은가 안 같은가 이것도 검토 많이 했고요. 그러니 그 고가 어디서 오는가. 모두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짓지 않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긁어서 부스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짓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다, 흔히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두를 받는 그것도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못 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해 볼까요? 화두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으면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다는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냥 자기로 돌리고 말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을 딴 데서 받아서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든 알든 진짜든 가짜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내 속에 내가, 이끌어 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고 '주여!'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이런 데서도 '주여' 하고선 자기 내면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을 건너다보고 찾아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위로 보고 찾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이 어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이 어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 불경을 많이 찾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리도 못 믿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떠 잡수시라고 이렇게 받쳐서 들고 이래도?

그렇다면 제일 시급한 게 병인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물론 가야만 할 때는 가야죠. 안 가도 괜찮을 때는 안 가도 괜찮죠. 그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니까요. 그만큼 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안 가도 괜찮고. 자력과 광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발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가도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도 법, 안 가도 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것은, 뭐 부러지거나 어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엔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의 손이 그 의사의 손이 될 수 있다'고 완전히 믿었을 때 그건, 아예 50%를 가야 할 길을 단 10%도 안 가요.

화두 얘기 하다가 어디로 그렇게 빙빙빙 돌아서 달아나갑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그저 듣는 분들이 생활의 요지를 건져서 쓰십시오. 내가 화두인데, 각자. 내가 화두입니다, 각자. 그런데 이 화두를 또 들고 '이게 무엇일꼬?' 한다면 속의 맛은 영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수박을 놓고 딩글딩글 굴리면서 '이게 뭘꼬? 이거 무엇일꼬?' 하고 굴려 봤던들, 아무 소리 없이 턱 잘라서 맛을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원하고요. 질질 끌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신행담을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많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스님은 왜 부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저러나?' 이러지마는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한문으로 예전의 용어를 가지고서 주욱 해 놓은 거를,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봤던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택시를 마차라고 그러면 될까요? 마차라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마차만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양쪽 바퀴를 만들어서 그렇게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용어가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한문으로 써 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공부 하는 데에 그냥 쓴 겁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그 반야심경은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맛이 납니까? 그래서 화두도 그렇지마는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나는 못 깨칠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옛날 조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말을 금방 하고도 "난 한 마디도 한 예가 없다. 난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부처님께선 49년을 말씀하시고도 난 한 번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게 하나도 없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해서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됐다가 법신이 됐다가 화신이 됐다가 이러면서 자꾸자꾸 바꿔 가면서 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해 주시니까 어떤 중생에게 응해 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는 얘기죠. 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